*영어어문교육 16*권 **1**호 **2010**년 봄

한국인 학자와 영어 원어민 학자의 논문 영문 초록 비교 분석

고수원
(고려대학교)

Ko, Sooweon. (2010). A discourse analysis of English abstracts by Korean and American schola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1), 189-208.**

Most if not al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s require the author to write an abstract regardless of academic field. However, abstract writing in English is a highly specialized genre on its own. In this l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journal article abstracts written in English by Korean and native English scholars. 90 research paper abstracts written in English by Korean national scholars, US-educated Korean scholars and native English scholars were compared according to rhetorical organization. A generalized rhetorical scheme was used in analysis which was based on Graetz (1985) and Swales (1990): Background-Purpose-Method-Result-Conclusion. In addition, the use of conjunctions as a cohesive device was analyzed based on the categories proposed by Halliday and Hasan (1976). Analyses of the research paper abstracts showed that the majority of the abstracts included the purpose, method and result components. However, while approximately 70 percent of native English writers used research background in the abstract, only 26 percent of Korean national scholars did so. Regarding the use of conjunctions, Korean-national scholars overused and inappropriately used additive and temporal conjunctions. The US-educated Korean scholars showed similar patterns to the native English speakers. The findings obtained here imply that there is a need to provide academic writing instruction of abstracts to non-native scholars.

[rhetorical structure/conjunction, 수사적 구조/접속사]

I. 서론

학술 논문의 대부분에는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논문 초록을 논문의 첫머리에 싣게 된다. 연구자는 초록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내용을 독자에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은 학자의 모국어로 작성되기도 하고 영어로 작성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회지에서는 논문이 어느 언어로 작성되어있든 영문 초록의 작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영어로 능숙하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한국인 학자마저도 영문 초록의 수사구조나 담화전략에 익숙하지 않아 영문 초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him, 2001).

언어 사용 과정에는 사고 과정이 반영되며, 문화권마다 사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언어 사용자들의 말이나 글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 사고 유형(cultural thought pattern)이 나타나는데(Connor & Kaplan, 1987; Kaplan, 1966) 필자와 독자의 수사 유형이 다를 때에는 최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문초록의 수사구조가 영어 사용자의 사고 유형에 맞게 작성되어야 내용을 쉽게 이해 시킬 수 있는데, 각 언어 사용자들의 말이나 글에는 서로 다른 수사구조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원어민의 영문 초록은 초록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초록은 요약과 같이 어떤 논문의 내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며 논문을 색인하고 인출하기 위한 정보 활동과 정보 인출에 사용된다(APA, p. 12). 초록은 학술지에 본문과 함께 출판되기도 하지만, 이차자료로서 따로 출판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초록은 특정 연구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읽혀지며, 독자들은 종종 초록에 기초하여 전체 논문을 읽을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초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학자의 영문 초록과 한국인 학자의 영문 초록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초록에 나타나는 수사구조와 특징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학자들이 효과적인 영문 초록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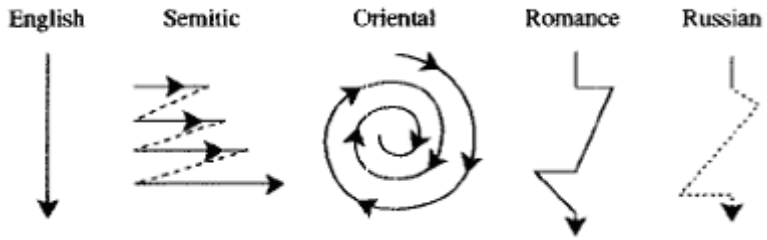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수사적 구조

Kaplan(1966)은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작문 분석을 통하여, 각 언어나 문화에서 선호되는 글의 단락 구성 형태(paragraph-building mode)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단락을 인위적 사고 단위(artificial unit of thought)라고 정의하면서, 사고는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락 구성 양태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결국 문화 배경에 따라 사고 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문어 담화구조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영어 원어민 학생들은 논점을 직접 제시하는 반면에, 동양권 언어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언급하다가 마무리 부분에서 제시하는 순환적 구성 형태로 주로 글을 조직하는데 이는 모국어 쓰기의 영향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순환적 쓰기 유형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은 탄젠트(tangent)식 개념의 다양성으로 주제를 두리뭉실하게 나타내고 결코 직접적으로 주제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직선형의 영어

쓰기를 학습할 때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림 1은 Kaplan(1966)의 문화적 사고 유형 패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문화에 따른 사고 유형 (Kaplan, 1966)



Kaplan(1966)에 따르면 영어권은 직선형의 논리전개 구조를, 유대인 및 아랍어 권은 평행선형 구조를, 라틴어 계통과 러시아어 권은 들쭉날쭉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에 따라 논리 전개 구조가 다르므로 자기가 속하고자 하는 담화 공동체에서 선호되는 텍스트의 수사구조와 언어형태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독자는 초록의 거시적인 구조를 알아보고, 논제의 일부를 이루는 부차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사구조가 적합하지 않으면 텍스트의 이해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제 2 언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수사구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Carrell, 1984; Salager-Meyer, 1992).

이상적인 초록의 요건으로 Graetz(1985)는 완성된 문장으로 이어진 설명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론, 문제, 요약, 연구 방법 등이 나타나는 문장이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를 따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논문의 주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한다.

논문 초록은 대개 3-6개의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Graetz(1985)는 학술지 논문 초록의 수사구조를 분석하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수사구조를 연구문제(Problem)-연구방법(Methods)-연구결과(Results)-결론(Conclusions)의 PMRC로 정리하였다. 반면에 Swales(1990)는 서론(Introduction)-연구방법(Methods)-연구결과(Results)-논의(Discussion)의 IMRD로 나타내고, 각각의 수사적 구성 요소에서 다루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Graetz(1985)의 PMRC 유형과 Swales(1990)의 IMRD 유형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요소인 '연구문제(Problem)'와 '서론(Introduction)'은 붙여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칭하는 요소는 연구자의 의도, 목적, 목표, 논제, 가설, 연구의 정당성 등으로 같다. Graetz(1985)의 PMRC 유형과 Swales(1990)의 IMRD 유형의 첫 두 가지 요소는 비슷한 것을 나타내는 반면, '연구 결과(Result)'와 '결론(Conclusion)

/논의(Discussion)'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Graetz(1985)의 '연구결과(Result)'에서는 결과의 요약만이 담겨있고, '결론(Conclusion)'에는 결과의 해석과 함의 및 추론이 포함되는 반면, Swales(1990)의 '연구결과(Result)' 에는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논의(Discussion)'부분에서는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더 일반화된 설명을 담고 있다.

초록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Borko & Bernier, 1975; Collinson, 1971; Weil, 1970 외 다수)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초록이 연구분야의 하나로써 관심을 받고 연구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논문 초록은 대개 3-6개의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Graetz(1985)의 PMRC 수사구조와 Swales (1990)의 IMRD 수사구조를 바탕으로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왔다(Lee, 2001; Martin, 2003; Shim, 2001; Tibbo, 1992; Ventola, 1994 외 다수).

Martin(2003)은 국제학술지에 쓰인 영문 초록과 스페인 학술지에 쓰인 스페인어 초록의 수사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학술지에서 사회과학 분야 초록 80개씩, 총 160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문 초록은 서론-연구 방법-연구 결과-결론 의 4개의 요소로 이뤄진 초록이 2/3이상인 반면, 스페인 어 초록은 1/4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한 스페인어 초록에는 3개 요소로 이루어진 초록이 가장 많았으며 1개 또는 2개의 요소로 된 초록도 1/4를 차지했다고 한다.

Shim(2001)은 응용언어학을 공부하는 미국인과 한국인이 쓴 박사학위 논문 1편씩에서 영문 초록의 수사구조와 담화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Graetz (1985)와 Swales(1990)가 제시한 PMRC 또는 IMRD 유형과는 달리 연구 결과와 결론에서 결과-논의-결과-논의로 회귀적 유형(recursive pattern)을 나타냈다고 한다. 미국인 학자의 영문 초록, 한국인 학자의 영문 초록과 한글 초록 모두 비슷한 수사구조를 띄었는데, 다른 점 하나는 한국인 학자는 하나의 결과를 밝힐 때 마다 각 결론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Shim의 연구는 미국인 학자와 한국인 학자의 박사학위 논문 각각 1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Shim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 또한 초록의 길이 면에서 박사학위 논문의 초록이 학술지의 초록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러한 회귀적 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Ventola(1994)는 독일어 학술지에 모국어인 독일어로 작성된 초록과 영어로 된 초록의 구조와 마디, 응집성, 주제와 해설의 전개, 접속사가 사용된 패턴, 지시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로는 올바른 초록의 구조를 따르는 저자가 외국어인 영어로 초록을 작성할 때에는 글의 구조를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영어쓰기를 잘 하는 사람이라도 영문 초록 작성에 있어서는 그 만큼의 쓰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 Ventola는 영어에서 나타나는 응집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요소를 독일어에서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문 초록쓰기를 위해 글의 수사구조를 중점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분석한 논문이 많이 있는데, 한국인 학자의 영문 초록과 영어 원어민 학자의 영문 초록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어민 학자와 한국인 학자의 초록을 비교 분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어권 나라에서 수학한 한국인 학자의 초록과 한국에서 수학한 한국인 학자의 초록을 비교 하여, 교육적 환경이 글의 수사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응집성

Halliday와 Hasan(1976)은 일련의 문장들로 표현된 상황에서 어떤 요소의 해석은 다른 요소의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 응집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The concept of cohesion is a semantic one; it refers to relations of meaning that exist within the text, and that define it as a text. Cohesion occurs where the interpretation of some element in the discourse is dependent on that of another. The one presupposes the other, in the sense that it cannot be effectively decoded except by recourse to it. When this happens, a relation of cohesion is set up, and the two elements, the presupposing and the presupposed, are thereby at least potentially integrated into a text. (Halliday & Hasan, 1976, p. 4)

즉, 응집성이란 의미적인 관계이며, 텍스트를 정의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담화에서 한 요소의 의미해석이 다른 요소의 의미해석에 의존할 경우에 생기게 된다. 어휘 자체나 구문 자체가 응집관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휘와 어휘, 어휘와 구문조직, 구문조직과 구문조직이 서로 의미의 관계를 맺을 때 응집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텍스트를 분석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응집장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에서도 응용언어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텍스트 분석방법은 Halliday와 Hasan(1976)의 응집성에 대한 이론이다. 표 1은 Halliday와 Hasan (1976)의 응집장치를 보여준다.

표 1

응집장치의 분류

A. 구문적 응집	B. 어휘적 응집
1) 지시(reference)	1)반복(reiteration)
2) 대치(substitution)	– 동의어(same word)
3) 생략(ellipsis)	– 유사어(synonymy)
4) 접속사(conjunction)	– 유사어에 가까운 어휘 (near synonym)

– 상위어(superordinate)
– 일반명사(general item)
2)연어(collocation)

표 1에 제시되었듯이 구문적 응집의 하위 목록에는 지시, 대용, 생략, 그리고 접속사가 있고, 어휘적 응집의 하위 목록에는 반복과 연어가 있다. 동의어, 유사어, 유사어에 가까운 어휘, 상위어, 그리고 일반명사는 반복의 하위 목록에 속하는데, 이 어휘들은 텍스트 안에서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어휘적 응집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응집장치는 글을 적절하고, 매끄럽게 연결해 주므로 잘 쓰여진 글에서는 응집장치가 적절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Witte와 Faigley (1981)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잘 쓰여진 작문과 낮은 질의 작문을 비교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작문은 더 다양한 종류의 응집장치를 사용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응집장치 중에서 접속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3. 접속사

앞서 언급한 데로 접속사는 여러 가지 응집요소 중 하나이다. 다른 종류(지시, 대치, 생략 등)의 응집은 형식이나 지칭의 계속성에 의해서 응집 효과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접속사는 자체의 뜻으로 앞 문과 뒷 문을 연결하는 간접적인 응집 수단이다(Halliday & Hasan, 1976, p. 226). Halliday와 Hasan은 접속사를 부가, 반의, 인과, 그리고 시간 4가지의 하위 분류로 나누었다. 표 2는 각각의 하위분류에 따른 예를 보여준다.

표 2
접속사의 종류

구분	종류
부가 접속사	and, nor, or, furthermore, in addition, besides
반의 접속사	yet, though, but, however, nevertheless
인과 접속사	so, then, therefore, as a result, in consequence
시간 접속사	then, at the same time, finally, at last

Reid(1992)는 응집 장치 중 대명사,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의 4가지를 선택하여 영어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작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원어민은 영어 원어민에 비하여 대명사와 등위 접속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고, 종속 접속사와 전치사는 적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대명사와 등위 접속사는 격식적인 담화보다 비격식적인 담화에 더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Reid는 제2언어 학습자들은 개인적이고, 비격식적인 영어

담화를 작문에서 사용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학자와 한국인 학자의 초록을 비교 분석하여 접속사 사용의 특징과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I. 본 연구

1. 연구 동기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다수의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영어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글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글의 수사적 혹은 담화적 특징을 분석하거나, 비원어민이 잘 범하는 오류를 찾아내어 효과적인 교수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분석한 논문도 많이 있는데, 한국인 학자의 영문 초록과 영어 원어민 학자의 영문 초록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어민 학자와 한국인 학자의 초록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영문 초록의 작성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가설

가설 1: 한국인 학자와 영어 원어민 학자의 논문 영문 초록에 나타난 수사적 구조가 다를 것이다.
가설 2: 한국이 학자와 영어 원어민 학자는 초록의 응집성을 위한 접속사 사용방식이 다를 것이다.

3. 분석 대상

영어 원어민 학자의 초록과 한국인 학자의 초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에 실린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각각의 학문분야에 따라 글쓰기 방식이 다르고(Bazerman, 1981; Hill et al., 1982; Swales, 1990), 초록의 구성요소는 계열별로 차이가 있어 단일기준을 모든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Tibbo, 1992),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의 계열을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분야(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학자의 초록과 한국인 학자의 초록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자 중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자는 학술논문 작성법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자와 비교했을 때 글쓰기의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들을 각각

다른 그룹으로 나누었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학자, 미국에서 수학한 학자 그리고 한국에서 수학한 학자의 3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초록을 비교 분석하였다.[2]

영어 원어민의 초록을 분석하기 위해 영어 교육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 학회지인 TESOL Quarterly의 영문 초록을 수집하였다. TESOL Quarterly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의 연구논문이 실리는데 저널에는 학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저자 초록부분에 나와있는 소속의 위치가 영어권 국가인 초록을 추출했다. 그런 후 영어 원어민의 도움을 받아 학자의 성이 미국인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자로 간주하였다.[3]

한국에서 수학한 한국인과 미국에서 수학한 한국인의 초록은 학술 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학술지에서 추출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학위 취득 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한 개의 학술지에서 추출한 자료는 부족하여 여러 국내 학술지들에서 초록을 수집하였다. 국내 학술지에는 영어로 된 논문도 실리고, 한글로 된 논문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어로 된 논문의 영문 초록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Kaplan(1966)에 따르면 심지어 하나의 문화 속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쓰이는 수사적 구조가 변할 수 있으므로 최근 10년인 1997년에서 2007년에 출판된 초록만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록의 길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초록의 총 단어 개수가 150~200개인 초록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한 학자당 논문 1개로 제한하여 각 그룹당 30명 학자의 초록을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분석 대상이 KOR, US-KOR, 그리고 EG의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각 그룹당 30개씩 총 90개의 초록이 분석되었다. 각 그룹의 분석 대상 목록은 부록을 참조한다.

4. 분석 내용

수사구조는 Swales(1990)의 IMRD 분류법과 Graetz(1985)의 PMRC 분류법을 바탕으로 연구배경(Background)-연구 목적(Purpose)-연구 방법(Method)-연구 결과(Result)-논의(Discussion)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Swales(1990)와 Gratez (1985)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자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이 각각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고 여겨 이 둘을 각각 다른 범주로 나누었다. 왜냐하면 연구의 목적만 홀로 제시하는 것보다, 이론적

[1] 한국 학술 진흥 재단에서 한국인 학자의 학위 취득 국가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w.krm.or.kr)

[2] 내용의 간결성을 위하여, 한국 수학 한국인 학자는 KOR, 미국 수학 한국인 학자는 US-KOR, 그리고 영어 원어민 학자는 EG(English Speaker)의 약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영어 원어민 학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배경이나 선행연구의 요약 등을 통해 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독자들이 현 연구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배경 범주에는 이론적 배경, 연구의 정당성, 연구 가설, 독자의 흥미 유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등이 포함되고, 연구 목적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사구조 분석표를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논문 초록의 수사구조 유형

구성요소	기술하는 내용
연구 배경(Background)	이론적 배경, 연구의 정당성, 연구 가설, 독자의 흥미 유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연구 목적(Purpose)	연구 목적
연구 방법(Methods)	연구 범위, 연구 자료, 연구 방법, 연구 절차, 연구 설계, 연구의 제한점
결과(Results)	연구 결과, 새롭게 발견된 내용
논의(Discussion)	발견된 사실의 가치, 함의 및 추론, 결과의 해석 및 결론, 연구 결과의 일반화

분석의 기준을 정한 후 BPMRD의 약자를 사용하여 각각의 구성을 정리하였다. 한 문장씩 읽으며, 구성요소의 약자를 적는데, 예를 들어 연구배경-연구목적-연구방법-결과-논의의 구성을 띄면 B-P-M-R-D로 표시한다. 예 1은 수사구조 분석의 예이다.

수사구조 분석의 예 1

(B) The present study builds on recent uptake research (Ellis, Basturkmen, & Loewen, 2001a, 2001b; Lyster & Ranta, 1997)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gotiated interaction, a type of focus on form episode, and learner uptake. (P)The study explores whether a negotiation routine's complexity affects learner uptake and if this uptake affects lexical acquisition in a synchronous computer-mediated environment. (M)The data are *chatscripts* of task-base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interaction among intermediate-level learners of English (n = 24). (R)Results suggest that the complexity of negotiation routines does not influence learner uptake. Findings also suggest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uptake (none, unsuccessful, and successful) and the acquisition of target lexical items. (D)These results suggest a possible diminished role for uptake in SLA in a CMC environment. The pedagogical application of these findings includes a word of caution to classroom teachers to adjust their expect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 uptake and acquisition. In attempting to explain the acquisition of target vocabulary items during task-based CMC interaction, teachers should

focus on the nuances of negotiated interaction as well as more subtle indications of acquisition rather than learner uptake per se.
(EG-27 *TESOL QUARTERLY* 39/1)

초록의 주기능은 뒤에 이어지는 논문의 구조와 내용을 요약하여 나타내는 것이지만, 초록 자체가 하나의 담화로 독립된 장르이다. 그러므로 초록은 글 전체가 일관성이 있고 응집력이 있어야 한다(Halliday & Hasan, 1976). 텍스트의 응집력을 이루게 하는 여러 종류의 응집장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접속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접속사는 다른 응집장치들과는 달리 자체의 의미를 통하여 이전에 나온 명제와 앞으로 전개될 명제의 의미적 관계를 연결하며, 텍스트의 주제와 관련되어 통합 및 요약과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Schleppegrell, 1996). 이러한 접속사를 본 연구에서는 Halliday와 Hasan의 분류를 따라서 첨가, 대조, 인과, 그리고 시간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4]

IV. 결과

1. 영문 초록 수사구조

표 4는 연구 배경(Background)과 연구 목적(Purpose)을 분리하여 분석한 수사구조 유형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비율은 전체 구성 비율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었다.

표 4
수사구조 유형

구성 요소	한국 수학 한국인 학자		미국 수학 한국인 학자		영어 원어민 학자	
	빈도(n=30)	비율(%)	빈도(n=30)	비율(%)	빈도(n=30)	비율(%)
BPMRD	8	26.67	8	26.67	14	46.67
BPMR	0	0	4	16.66	7	23.33
PMRD	16	53.33	13	43.33	9	30
PMR	5	16.67	5	16.67	0	0
MR	1	3.33	0	0	0	0

[4] 접속사 And 역할의 경우 크게 병렬적 대등관계의 역할과 응집의 역할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응집의 역할을 하는 and만 다루기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초록이 BPMRD의 요소를 전부 갖추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 학자는 PMRD 유형이 53.55%의 비율로 가장 많은 반면, 영어 원어민 학자는 BPMRD 유형이 4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 2는 한국인 학자들이 많이 사용한 PMRD 유형의 예이다.

수사구조 분석의 예 2

(P)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English learning standards based o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in relation to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skill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about the English learning standards. (M)For this purpose, learning standards of speaking and writing skills of the current curriculum are examined against those of ACTFL, because these skill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excessively high levels, which most students may not reach through classes at school. (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learning standards for the sixth graders of Korean primary school be similar to those of ACTFL novice-mid, and for the first graders of Korean senior high school, ACTFL intermediate-mid.(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a relevant model has been suggested. The present study expects to be followed by more research which will testify its adequacy through classroom applications of the suggested model.

(KOR-01 English Language Teaching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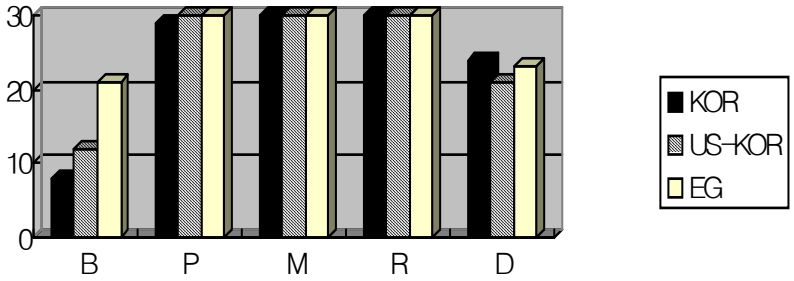
표 5와 그림 2는 각각의 수사 단계가 나타나는 빈도와 전체에서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로서 비율은 소수점 두 번째까지 반올림 하여 나타내었다.

표 5

수사구조 구성 비율 분석

구성 요소	한국 수학 한국인 학자		미국 수학 한국인 학자		영어 원어민 학자	
	빈도(n=30)	비율(%)	빈도(n=30)	비율(%)	빈도(n=30)	비율(%)
B	8	26.67	12	40	21	70
P	29	96.67	30	100	30	100
M	30	100	30	100	30	100
R	30	100	30	100	30	100
D	24	80	21	70	23	76.67

그림 2
수사구조 구성 비율 분석



*KOR: 한국 수학 한국인 학자, US-KOR: 미국 수학 한국인 학자,
EG: 영어 원어민 학자를 나타낸다.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학자들간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사단계는 M과 R로 모든 초록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초록에서는 총 30편중 8편만이 B를 다루어서 26.67%의 비율을 나타낸 반면, 영어 원어민 학자는 B를 초록에 사용한 비율이 70%로 한국인 학자가 영어 원어민 학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논의(Discussion)의 경우 한국 수학 한국인 학자 80%, 미국 수학 한국인 학자 70% 그리고 영어 원어민 학자 76.67%로 비교적 많은 영문 초록에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수학 한국인 학자의 초록에서는 예 3과 같이 구체적인 제안은 언급하지 않고,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간단하게 기술한 초록이 발견되었다.

예 3

Some suggestions are made to activate cross-curricular English teaching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KOR-04>

Suggestions to improve English programs in universities are offered. <KOR-24>

예 3과 같이 제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제안을 할 것이라고만 언급한 문장은 독자들을 혼란하게 할 뿐이다. APA(2001)에서도 초록에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피상적인 문장의 사용은 피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초록에 연구 결과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포함하고자 한다면 제안이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한국인 학자여도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 여부에 따라 수사구조 구성비율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수학하고 교육받은 한국인 학자는

B를 40% 사용한 반면, 한국에서 수학하고 교육받은 한국인 학자는 B가 초록에 사용된 비율이 26.67%에 그쳤다. 이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학자들은 미국학자들의 수사구조를 따라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환경에 따라 수사구조가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접속사 사용 비교

표 6과 그림 3의 수치는 각 그룹별 초록에 사용된 접속사의 수이다.

표 6
초록에 사용된 접속사의 수

	KOR		US-KOR		EG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가 접속사	46	53.49	31	50.82	20	34.48
반의 접속사	7	8.14	8	13.12	16	27.59
인과 접속사	15	17.44	5	8.20	11	18.97
시간 접속사	18	20.93	17	7.87	11	18.97
총 합계	86		61		58	

그림 3
초록에 사용된 접속사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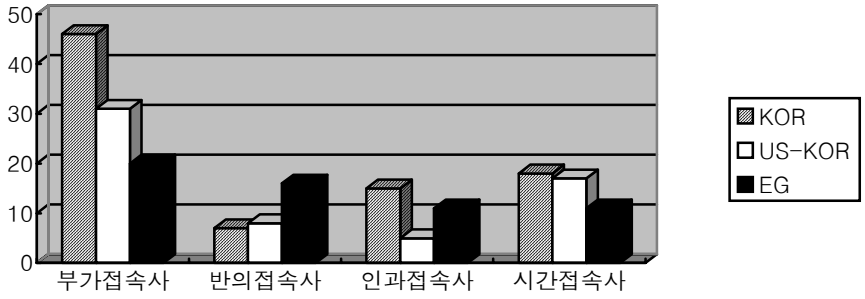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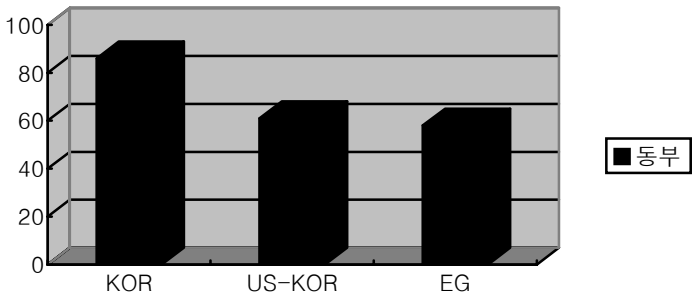


표 6과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그룹의 초록에 공통적으로 부가 접속사가 가장 빈번히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학자는 부가 접속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49%로 응집을 위해 부가 접속사에 반 이상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어 원어민 학자는 부가 접속사 34.48%, 반의 접속사 27.59%, 인과 접속사 18.97%, 그리고 시간 접속사 18.97%의 비율로 모든

접속사의 종류가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접속사는 문장 사이의 두 성분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응집 장치로 문장들간의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논리성이 명확하고 내용 전개상 당연시되는 때는 연결 접속사나 연결 문장을 넣을 필요가 없다. 특히 초록과 같은 짧은 텍스트에 많은 내용을 요약하고자 할 때에는 불필요한 접속사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효과적인 초록 작성에 도움을 준다.

그림 4
총 접속어 사용빈도



각 그룹의 총 사용된 접속어 수에 대한 수치는 그림 4와 같다. 분석한 초록의 총 접속사 사용 수는 KOR가 86개, EG-KOR가 61개, 그리고 KOR가 58개로 총 접속사 사용빈도는 KOR가 가장 많았고, EG는 비교적 접속사를 적게 사용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US-KOR는 KOR보다 접속사를 비교적 적게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과 같은 ESL(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혹은 EFL 화자뿐만 아니라 영어 원어민 화자의 작문에서 접속사 사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영어 원어민의 작문을 분석한 결과 작문실력이 우수한 작가일수록 접속사를 적게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작문 실력이 우수할수록 텍스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속사 외에 다른 응집 장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Crowhurst, 1987; Norment, 1982; Scarcella, 198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올바른 접속사의 이해와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영어 원어민 화자의 글과 ESL 또는 EFL 화자의 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ESL 그리고 EFL 화자가 원어민과는 다른 영어 작문에서의 취약점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in, 2004; Silva, 1993).

초록은 연구 논문에서 가장 먼저 읽혀지는 부분으로, 효과적인 초록 작성의 훈련이 필요하다. 독자가 논문 전체를 읽지 않아도 초록만으로 연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어민 학자와 한국인 학자의 영문 초록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학자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효과적인 영문 초록의 작성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PMRD 구조에 따른 수사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어 원어민 학자는 BPMRD 유형이 가장 많이 쓰인 반면, 한국인 학자는 PMRD 유형을 많이 사용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록을 쓸 때 한국인 학자는 연구 목적을 바로 제시하는 경향이 큰 반면, 영어 원어민 학자는 연구 배경이나 선행 연구의 요약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확고히 보여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록에 사용된 접속사를 분석하고자 Halliday와 Hasan(1976)의 접속사 분류 기준을 따랐다. 부가, 반의, 인과 그리고 시간 접속사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가 접속사가 모든 초록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총 접속사 사용 빈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 학자가 영어 원어민 학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학자는 초록에 응집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응집장치 중 접속사에 크게 의존함을 보여 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자를 교육 환경에 따라 다른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US-KOR가 KOR보다 B요소를 비교적 많이 사용함을 보였다. 또한 초록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접속사 사용 빈도를 비교한 결과 US-KOR는 EG와 비슷한 접속사 사용빈도를 나타낸 반면, KOR는 접속사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US-KOR는 영어권 국가에서 학습하고,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EG의 글쓰기 방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의 학문 분야를 EFL로 제한하고, 초록의 길이와 쓰여진 날짜를 통제하여 분석 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영어 원어민 학자의 영문 초록은 하나의 학술지에서 추출하고, 한국인 학자의 영문 초록은 여러 다양한 학술지에서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석한 초록의 수가 KOR, US-KOR, 그리고 EG의 각각 30개씩 90개로 분석 결과를 각 그룹의 특징으로 일반화 하여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효과적인 초록 작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으로서 영어 작문 지도에 있어서 모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연습에 그치지 말고,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어 사용권 국가의 논리 전개 구조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각 문화권마다 논리 수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Kaplan, 1966) 영어로 초록을 작성시에는 영어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리구조의 형태를 사용해야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여러 문화에 따른 수사구조의 차이에 대한 교사 자신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접속사 사용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접속사 사용에 있어서 ESL 혹은 EFL 학습자의 문제점은 접속사를 과잉 사용하는 것이다(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p. 557). 텍스트에 분명히 나타나는 문맥 관계에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은 청자 혹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제공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접속사를 어휘지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텍스트 차원에서의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바른 초록을 쓰는 훈련은 학자가 그들 자신의 글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요점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연습이 되므로(Porush, 1995) 본 연구의 결과가 영문 초록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Publication manual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zerman, C. (1981). What written knowledge does: three examples of academic discours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11*, 361-382.

Borko, H., & Bernier, C. (1975). *Abstracting concepts and methods*. NY: Academic Press.

Carrell, P. L. (1984). The effects of rhetorical organization on ESL readers. *TESOL Quarterly, 18*(4), 441-460.

Celce-Murcia, M., & 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Boston, Mass: Heinle & Heinle.

Collinson, R. L. (1971). *Abstracts and abstracting services*. Santa Barbara, CA: Clio Press.

Connor, U., & McCagg, P. (1987). A contrastive study of English expository prose paraphrases. In U. Connor & R. Kaplan (Eds.), *Writing across languages: Analysis of L2 text* (pp. 73-86). Reading, MA: Addison-Wesley.

Crowhurst, M. (1987). Cohesion in argument and narration at three grade levels.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21*, 185-201.

Graetz, N. (1985). Teaching EFL students to extract structural information from abstracts. In J. M. Ulijn & A. K. Pugh (Eds.), *Reading for professional purposes* (pp. 123-135). Leuven, Belgium: ACCO.

Halliday, M.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Hill. S. S., Soppelsa, B. F., & West, G. K. (1982). Teaching ESL students to read and write experimental research papers. *TESOL Quarterly, 16*(2), 337-347.

Kaplan, R. B. (1966).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 *Language Learning, 16*, 1-20.

Lee, Eunpyo. (2001). A study on error analysis & hedging expressions of medical research abstrac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1), 47-66.

Martin, P. M. (2003). A genre analysis of English and Spanish research paper abstracts in experimental social scienc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2*, 25-43.

Min, Su-Jung. (2004). Citation practices in academic corpora: Implications for EAP writ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3), 113-126.

Norment, N. (1982). Contrastive analysis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cohesive elements in English, Spanish, Chinese student's writing in narrative and expository modes. Unpublished manuscript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69764)

Porush, D. (1995). *A short guide to writing about science*. NY: Harper Collins College.

Reid, J. M. (1992). A computer text analysis of four cohesion devices in English discourses by native and non-native writer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2), 79-107.

Salager-Meyer, F. (1992). A text-type and move analysis study of verb tense and modality distribution in medical English abstract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1*(2), 93-113.

Scarcella, R. (1984). Cohesion in the writing development of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speake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86A.

Schleppegrell, M. J. (1996). Conjunction in spoken English and ESL writing. *Applied Linguistics, 17*(3), 271-285.

Shim, E. S. (2001). Genre analysis of dissertation abstracts: A contrast between a Korean writer and an American writer. *Modern English Education, 2*(2), 75-96.

Silva,T. (1993).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 nature of L2 writing: The ESL research and its implication. *TESOL Quarterly, 27*(4), 657-677.

Swales, J. M. (1990). *Genr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bbo, H. (1992). Abstracting across the disciplines: A content analysis of abstracts from the natural sciences,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with implications for abstracting standards and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LISR, 14*, 31-56.

Ventola, E. (1994). From syntax to text: Problems in producing scientific abstracts in L2. In S. Čmejrková & F. Sticha (Eds.), *The syntax of sentence and text* (pp. 283-303). Amsterdam: John Benjamins.

Weil, B. H. (1970). Standards for writing abstrac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1*(5), 351-357.

Witte, S. P., & Faigley, L. (1981). Coherence, cohesion and writing qualit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s, 32*, 189-204.

부록 1

영어 원어민 초록 목록

초록 번호	출처	Vol/No
EG-01	*TESOL QUARTERLY*	41/1
EG-02	*TESOL QUARTERLY*	41/2
EG-03	*TESOL QUARTERLY*	39/4
EG-04	*TESOL QUARTERLY*	37/1
EG-05	*TESOL QUARTERLY*	40/3
EG-06	*TESOL QUARTERLY*	38/3
EG-07	*TESOL QUARTERLY*	37/2
EG-08	*TESOL QUARTERLY*	36/4
EG-09	*TESOL QUARTERLY*	36/3
EG-10	*TESOL QUARTERLY*	36/2
EG-11	*TESOL QUARTERLY*	46/1
EG-12	*TESOL QUARTERLY*	35/1
EG-13	*TESOL QUARTERLY*	35/3
EG-14	*TESOL QUARTERLY*	41/2
EG-15	*TESOL QUARTERLY*	41/2
EG-16	*TESOL QUARTERLY*	41/1
EG-17	*TESOL QUARTERLY*	40/3
EG-18	*TESOL QUARTERLY*	40/3
EG-19	*TESOL QUARTERLY*	40/3
EG-20	*TESOL QUARTERLY*	41/2
EG-21	*TESOL QUARTERLY*	39/4
EG-22	*TESOL QUARTERLY*	39/3
EG-23	*TESOL QUARTERLY*	39/3
EG-24	*TESOL QUARTERLY*	39/3
EG-25	*TESOL QUARTERLY*	39/2
EG-26	*TESOL QUARTERLY*	39/2
EG-27	*TESOL QUARTERLY*	39/1
EG-28	*TESOL QUARTERLY*	39/1
EG-29	*TESOL QUARTERLY*	32/2
EG-30	*TESOL QUARTERLY*	31/1

부록 2

미국 수학 한국인 초록 목록

초록 번호	출처	Vol/No
US-KOR 1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1
US-KOR 2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4
US-KOR 3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4
US-KOR 4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4
US-KOR 5	English Language Teaching	16/1
US-KOR 6	English Teaching	59/2
US-KOR 7	English Teaching	59/1
US-KOR 8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4
US-KOR 9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4
US-KOR 10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2
US-KOR 11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3
US-KOR 12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3

US-KOR 13	English Teaching	59/3
US-KOR 14	English Teaching	59/1
US-KOR 15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US-KOR 16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US-KOR 17	English Teaching	57/1
US-KOR 18	English Teaching	57/1
US-KOR 19	English Teaching	57/1
US-KOR 20	English Teaching	57/1
US-KOR 21	English Teaching	56/3
US-KOR 22	English Teaching	56/2
US-KOR 23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4
US-KOR 24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1
US-KOR 25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4
US-KOR 26	Primary English Education	10/2
US-KOR 27	Primary English Education	10/1
US-KOR 28	Primary English Education	9/2
US-KOR 29	STEM journal	4/2
US-KOR 30	Applied Linguistics	17/1

부록 3

한국 수학 한국인 초록 목록

초록 번호	출처	Vol/No
KOR-01	English Language Teaching	17/4
KOR- 02	Primary English Education	10/2
KOR- 03	Primary English Education	9/1
KOR-04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2
KOR-05	English Language Teaching	14/1
KOR-06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1
KOR-07	English Language Teaching	15/1
KOR-08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2
KOR-09	English Language Teaching	7/1
KOR-10	English Teaching	62/3
KOR-11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4
KOR-12	English Language Teaching	16/2
KOR-13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2
KOR-14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4/1
KOR-15	Linguistics	6/1
KOR-16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3
KOR-17	English Language Teaching	15/2
KOR-18	English Linguistic Science	9/-
KOR-19	Applied Linguists	15/1
KOR-20	STEM journal	4/1
KOR-21	STEM journal	2/1
KOR-22	English Teaching	56/2
KOR-23	English Teaching	55/1
KOR-24	English Language Teaching	14/1
KOR-25	NKA[5]	41/2
KOR-26	Primary English Education	7/2
KOR-27	English Teaching	51/2

[5] The New Korean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OR-28	English Language Teaching	15/2
KOR-29	English Language Teaching	12/1
KOR-30	English Language Teaching	4/1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Higher

고수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02-3290-1980
Email: lovesooweo@korea.ac.kr

Received in January, 2010
Reviewed in February,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2010